

국민의당 '통합 갈등' 이번 주 분수령



지난 10일부터 두달 여를 끌어온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갈등이 18일 분수령을 맞고 있다. 안 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함께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주 동남 방문을 검토하며 통합론 정면돌파를 시사하고 있다. 반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긴급 조찬회동을 갖고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라 양측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
안 대표 측은 '의견 수렴'이라는 명칭 하에 이어온 전국 시도당별 당원간담회를 이번주 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. 아울러 통합론으로 촉발된

당내 갈등 상황도 조만간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. 지금까지 당 소속 의원들을 1대 1로 만나 안 대표 측은 특히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우세한 현역 의원들과 자신에게 우호적인 원외위원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통합론을 설득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.

안 대표는 아울러 오는 21일엔 통합을 전제로 진행돼온 '국민통합포럼' 광주 행사에 유 대표와 동반 참석을 검토 중이다. 호남 중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'통합 반대' 여론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. 안 대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당

안, 의견수렴 마치고 21일께 유승민과 광주주 통합 반대파, 긴급 조찬회동...“의원총회 소집” 커지는 ‘손학규 역할론’...안철수측 회동 추진

내부 상황을 정리한 뒤 내주께 유 대표와 회동할 계획이다. 통합 포럼 등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1대 1 회동 형식으로 이는 사실상 통합 선언을 위한 마지막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의 반발 목소리도 만만찮다. 통합 반대파인 정동영·조배숙·유성열·장병안·장정숙 의원과 호남계인 박준영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긴급조찬모임을 갖고 안 대표가 통합 추진을 강행할 경우 '총력 저지'에 나서겠다는 뜻을 모았다.

조 의원은 "저희는 안 대표와 유 대표의 바른정당 합당"을 보수야 합이라고 규정하고 절대로 반대한다"고 못박았다. 이들은 아울러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하기도 했다.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한 만큼 이를 통해 안 대표의 통합 동력을 꺾겠다는 것이다.

이처럼 당내 갈등이 일촉즉발로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귀국하는 손학규 고문의 '역할론'도 대두되고 있다. 손 고문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도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거론한 만큼 바른정당 통합론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게 안 대표 측 시각이다.

반면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안 대표 거취에 초점을 두고 "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손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훌륭한 대안"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. 결론적으로 손 고문이 안 대표에 대한 반대파의 반감을 잠재우면서 통합론에도 힘을 실을 수 있는 '절충점'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.

안 대표 측은 이와 관련 손 고문 귀국 후 두 사람 간 회동도 검토 중이다. 안 대표 측 관계자는 "(손 고문은) 당내 주요 정치인 중 한 명"이라며 "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셔야 될 것"이라고 했다.

안희정 충남지사 "3선 도전은 물론 보궐선거도 출마 안할 것"

안희정 충남지사는 18일 "3선 도전은 물론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임기를 마무리하겠다"고 공식 발표했다.

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.

안 지사는 "지난 7년 6개월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도민과 함께 많은 성과를 올렸다.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"며 "도민과 공직자들의 힘으로 충남이 한발 전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.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속가능한 충남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겠다"고 서론을 꺼냈다.

이어 안 지사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"7년여동안 열심히 일했다. 도민들의 사랑 덕분에 도지사 3선 도전은 출마하지 않겠다.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기회 주는게 도리이다.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도정 마무리하는 것



이 저의 입장"이라고 강조했다.

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"고려하고 있다. 남은 임기 도정에 전력하고 그후 정치일정은 송별기자회견 때 밝히겠다"고 덧붙였다.

뉴스스

의원식 "한국당, 임시국회 협조해 달라"

민생법안 처리 위한 상임위 정상운영 요구 "최소한의 도리"



의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정상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.

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"정부여당이 애초에 민생법안과 개혁입법 해결 등점을 호소했지만 한 국당 앞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그는 "대부분 상임위가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제대로 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"며 "국방위는 5.18 특별법,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연내(상임위) 개최마저 불가능한 상황"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우 원내대표는 "그중 단연 최악은 법사위다. 민생 입법 마비의 진

양 구실을 하고 있다"며 "오늘까지 법사위는 205건의 타 위원회 법안을 포함해 총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도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"고 질타했다.

그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을 향해 "법사위원장 직책을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"며 "법안 심사 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당사 복귀해 법안심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"라고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.

우 원내대표는 "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.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상임위 정상 운영에 협력해 달라"며 "국정원 개혁, 공수처 설치 등 필수 개혁과제와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"다섯 남은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민생정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"고 말했다.

홍준표 칼끝에 벼랑 끝 몰린 '친박계'...사실상 해체수순

자유한국당이 17일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당무감사에서 친박계 원내의 당협위원장들이 이름을 대거 올림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친박정산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이날 발표된 당무감사 결과에서 친박 서정원, 유기준, 배덕광 임용수 현역의원을 당협위원장 자격이 박탈됐다. 원외 인사 중에서는 친박 권영세 전 주중대사, 김희정 전 여성부 장관 등이 탈락자 명단에 올랐다. 홍준표 지도부 출범이후 사실상 친박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.

이날 당무감사 결과가 친박정산의 마무리 단계라면 앞서 7월 홍 대표 당선이 친박정산의 서막이라는 평가다. 홍 대표는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직·간접적으로 친박정산을 예고했다.

새로운 지도부 출범이후 당 운

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, 서정원·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권유조치를 내렸다. 지난달 4일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친박의 중심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.

박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서 의원과 최경환 의원도 사실상 정치

태 의원, 친박 홍문종 중립단일화한신교 의원이 맞붙었지만 1차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인 55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.

비박계이자 친홍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55표라는 표를 얻은 데에는 일부 친박계들의 표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친박계

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. 현재 당 투톱인 홍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이 비슷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승리는 목표이래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.

또 친박계는 지난 총선과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지지층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.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중인 상황에서 구심점을 갖기도 힘들다.

따라서 이제 친박시대가 사실상 저물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지배적이다.

뉴스스

당무감사 결과 서정원·유기준 등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

'친박' 최경환·원유철도 검찰 조사...친박시대 저물어

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평가도 나왔다. 현재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. 그 외 친박 원유철이 우원 의원등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앞두고 있다.

지난 12일 치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비박이자 친홍계인 김성

가 구심점을 잃고 분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.

한편 친박계 의원들이 반격을 계획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

지역규명·미래창조·정문지침

湖南新聞

전인 062)224-5800

팩스 062)222-5548

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!

(주)에이치엔프레스 검색

자연석/호박돌/간판석/판재석/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

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

저희 (주)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, 호박돌, 간판석, 판재석,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.

문의전화

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

TEL : 062-224-5800

H·P : 010-5448-8868

"무료상담환영"